

역학(易學)과 예술치료학의 상관성 연구

까르마에토스와 동적가족화 상징의
분석을 중심으로

차현희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이사 · BL심리상담센터 대표, 상담심리학 전공, 상담학 박사
chamari@hanmail.net

- I. 머리말
- II. 역학(易學)의 가족관계 상징
- III. 예술치료학의 가족관계 상징
- IV. 사례분석
- V. 맺음말: 사례분석의 결론

I. 머리말

이 글은 역학(易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성격유형론의 상징과 예술치료의 상징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동양철학 및 한국학에 토대를 둔 예술치료의 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지평을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역학은 한국학을 포함한 동양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으로 『주역』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고 있다.¹⁾ 그러나 역학은 이 외에도 술수(術數)라고 부르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²⁾ 이 글에서는 현대 학문 가운데, 심리학, 상담학, 심리치료, 예술치료, 미술치료 등에 대응될 수 있는 술수 역학의 한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달마일장금(達磨一掌金)』이라는 술수학의 문헌이다.³⁾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문헌을 현대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까르마에토스(Karma Ethos) 성격유형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까르마에토스는 역학적 특성을 잘 계승하여, 이를 현대학문의 언어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까르마에토스 성격유형론에는 가족관계의 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적 장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심리치료가 목표로 하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을 달성하는 데 가족관계의 건전성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의 일반적 가정과 비교할 수 있는 유효한 요인이 된다. 특히, 예술치료학 또는 미술치료학은 한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심리학의 이론들을

1) 廖名春 외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예문서원, 1998), 43쪽.

2) 1995년 臺灣에서 간행한 『眞本術數叢書』(全72冊)는 술수를 7분야로 나누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四庫全書』의 분류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7개 분야는 ① 算數之屬(역학 관련), ② 占候之屬(천문기상점 관련), ③ 相宅相墓之屬(풍수지리 관련), ④ 占卜之屬(역점 관련), ⑤ 星命相書之屬(점성술, 사주명리 관련), ⑥ 陰陽五行之屬(태을 및 기문 둔갑 관련), ⑦ 雜技之屬(꿈 해몽 관련) 등이다. 『眞本術數叢書』(全72冊),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95. 이는 현대 학문에서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응하는 것이다. 술수는 근대세계에서 학문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미신의 이름으로 축출된 분야이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일고 있으며, 문사철(文史哲)이나 예술 방면에 국한된 동양철학의 연구 영역을 확장해주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최로 「동아시아 술수학 지식의 교류와 전파(The study of Shushu(術數): Its Exchange and Dissemination in East Asia)」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회가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및 베트남의 술수학에 대해서 국내외 학자들의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다.

3) 唐一行著, 『新刻達磨一掌金』55冊(『眞本術數叢書』(全72冊))(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95).

4) 『달마일장금』과 까르마에토스는 이 글의 II장 참조.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저로 하여, 개인의 무의식을 의식화한 조형작품을 분석하여 인간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비교적 근세기 초에 성립된 심리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가 예술치료학이기 때문에, 까르마에토스와 예술치료학의 비교는 긍정적인 결과를 시사해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역학 분야에서는 한 개인의 탄생 시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한 자기이해나 가족간의 역동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학문적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운명을 파악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던 방식을 크게 수정하여, 현대인의 합리적 관심사에 적용하는 데서 생겨난 새로운 동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이 글에서는 까르마에토스를 토대로 개인의 기질·성격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선천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예술치료학의 경험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현재의 가족관계 역동을 파악하고, 양자의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을 결합함으로써 내담자의 현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의 정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비록 두 가지 방법론은 전근대와 근대의 시대로 구분되어 있고, 동서양의 문화적 상이함이 크며, 학문 분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징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공통의 비교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탄생의 시점을 간지(干支)라는 상징적 부호로 전환하여 한 개인의 선천적 조건들을 분석하는 방식과 무의식을 시각적 상징 형태로 조형해서 분석하는 예술치료학의 방식은 모두 한 개인의 심리 상황을 만들어내는 내적인 힘을 다루고 있다는 데 일치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이 비록 제한된 분야에서라도 그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역학과 예술치료학이 공히 목표로 하는 인간의 이해에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예비적 시론을 구상하고자 한다.

글은 다음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을 부각시킨 까르마에토스와 예술치료학의 동적가족화에 드러난 양자의 상징성에 주목하여 그 상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까르마에토스에서 한 개인의 가족역동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건전성 여부를 가리키는 합(合)과 형충파해(形沖破害)의 개념을 제시하여 가족의

5)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명리학 전공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원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역동에 관한 상징성과 적용 범위를 논의한다. 또한 예술치료학의 동적가족화 개념과 역동성 그림분석 기준을 설명하고, 가족 간의 역동적 상징성과 적용 범위를 이해한다. 이어서 동적가족화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까르마에토스의 가족관계 분석과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역학과 예술치료학의 통합적 관점에 따른 해석의 유효성 여부를 논의한다.

II. 역학(易學)의 가족관계 상징

1. 까르마에토스의 개념

인간을 유형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⁶⁾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유형론 가운데 동양의 전통 유형인 불교와 음양오행론에 기반한 『달마일장금』을 현대 심리학으로 해석하여 재구성한 까르마에토스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까르마에토스는 『달마일장금』이라는 술수문헌을 원형으로 하는데, 이 문헌은 불교의 업(業, Karma)사상과 역학의 음양오행설을 결합하여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전형적인 술수학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런데 이 문헌은 동양의 고유한 인간관에 대해 심리학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다소 경험적인 내용에 바탕을 둔 인간의 유형론적 이해가 있다. 이는 비록 전근대적인 언어이지만, 인간의 성격유형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현대 심리학으로 해석한 것이 곧 까르마에토스이다.

까르마에토스는 인간의 업(業) 혹은 행위, 타고난 것,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의 까르마(Karma)와 거주한다(dwelling on)를 뜻하는 희랍어의 에토스의 합성어로서, 선천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되어

6) 서양 전통 유형론: ① 4기질 유형론: 프로토타입, ② 르네상스 시기 유형론: 파라셀수스, ③ 기질론의 현대적 계승: 한스 아이젠크(Hans Jurgen Eysenck)의 성격유형, ④ 융의 유형론과 MBTI, ⑤ 비유럽적 전통의 계승: 에니어그램 ⑥ 의학적 심리학의 유형론: 셸던과 크레치머. 동양 전통 유형론: ① 음양오행론, ② 한의학의 유형론, ③ 사상의학의 유형론, ④ 인상학의 유형론, ⑤ 명학의 유형론. 이창일, 『불교사상과 음양오행론에 기반을 둔 성격유형론 연구-까르마에토스(Karma Ethos)의 이론과 적용』,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24-62쪽 참조.

7) 芝蘭, 『達磨一掌經』(台北: 知青類圖出版, 2006) 참조.

표1-명식의 가족 상징

시주 명식과 가족 역동	
연주(年柱)	본인
월주(月柱)	원가족
일주(日柱)	배우자
시주(時柱)	자녀

있는 모종의 기질과 성격을 의미한다.⁸⁾ 그래서 까르마에토스는 인간은 백지 위에서 시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교적 의미에서 전생의 숙업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미 타고난 선천적인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그의 성격을 형성하고 여기에 일정한 운명의 암시까지 지시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태어난 특정한 시점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욕망의 체계이며, 이는 음양오행론에 기반한 천간과 지지의 상징적 부호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징적 부호는 전통적으로 명식(命式, a expression of ones's destiny)이라고 불려왔는데, 명식은 태어난 연월일시(年月日時)의 순서를 뜻한다.⁹⁾

명식은 한 개인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또한 고유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은 표1과 같다. 가령, 태어난 해는 자신이며, 태어난 달은 가족, 태어난 날은 배우자가 되며, 태어난 시는 자녀에 대응한다.

까르마에토스에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분석을 위한 명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림1은 순환하는 특성을 가진 12지지를 왼손바닥의 지절에 대응해서 편리하게 만든 것이다.¹⁰⁾

약지 아래의 자(子)부터 왼쪽으로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순서로 향하는 것이 순행이며, 남자의 명식을 세울 때 이 방식을 따른다. 반면 여자의 명식은 반대 방향, 즉 역행의 순서를 따른다.

8) 이창일, 앞의 논문, 144-146쪽 참조.

9) 명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① 年月日時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12地支의 상징적 부호로 변환한다. ② 圓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佛手掌訣圖〉를 기준으로 하여 남자의 경우는 간지의 순서가 順行하고, 여자는 逆行한다. 원진량, 『일장급 명리학』(고려역학출판사, 2010), 122쪽 참조.

10) 『達磨一掌金』에 있는 그림이며, 〈佛手掌訣圖〉는 편의로 붙인 이름이다. 원진량, 앞의 책 참조.

표2-연주(年柱)

순서 ⇨

연(年)	월(月)	일(日)	시(時)
酉			

셋째, 유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태어난 달인 7월까지 일곱을 세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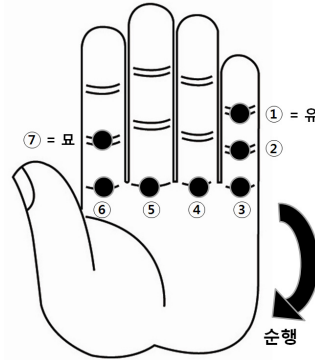


그림3-월주의 자리 찾기

유에서부터 순행하여 일곱 번째 자리는 묘(卯)가 되며, 이를 명식에 표기하면 표3과 같다.

표3-월주(月柱)

연(年)	월(月)	일(日)	시(時)
酉	卯		

넷째, 월주의 상징적 부호인 묘의 자리에서부터 태어난 날인 17일까지, 열일곱 자리를 세어나간다. 역시 묘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센다.

순바닥의 돌레를 한 바퀴 빙 돌아서 미(未)에 도달했다. 이것이 일주(日柱)의 상징 부호가 되며, 이를 명식에 표기하면 표4와 같다.

표4-일주(日柱)

연(年)	월(月)	일(日)	시(時)
酉	卯	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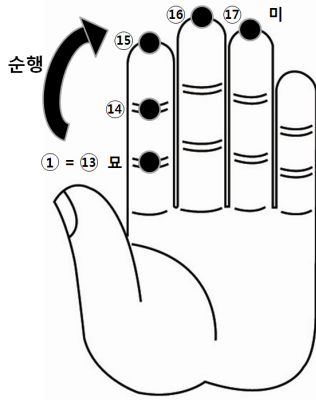


그림4-일주의 자리 찾기

다섯 번째, 태어난 시를 찾는다. 표5에 제시한 시(時)와 지지의 대응표를 참조한다.¹¹⁾

표5-시(時)와 지지의 대응표

지지	시각	시간대	순서
자	11:30-01:30	자정 무렵	1
축	01:30-03:30		2
인	03:30-05:30		3
묘	05:30-07:30		4
진	07:30-09:30	아침 무렵	5
사	09:30-11:30		6
오	11:30-01:30	정오 무렵	7
미	01:30-03:30		8
신	03:30-05:30		9
유	05:30-07:30		10
술	07:30-09:30	저녁 무렵	11
해	09:30-11:30		12

11) 지금의 시간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지만, 이전에는 12地支에 따라 구분하였다. 子時は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2시간 간격이다. 그러나 보다 정밀한 시간 구분을 위해 東京時가 아닌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30분 정도 늦게 시간을 구분한다.

여섯 번째, 예를 들고 있는 닭띠 남자는 축시(丑時)에 태어났다. 월주의 상징 부호인 미(未)를 시작으로, 시간의 시작인 자시(子時)에서부터 축시 까지 순행으로 세어간다. 축시이므로 두 번째가 된다. 미에서 두 번째면 신(申)의 자리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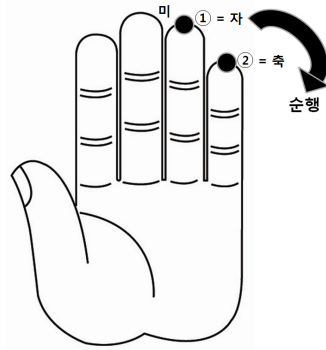


그림5-시주의 자리 찾기

이 남자의 시주(時柱)는 신이 되며, 이를 명식에 표기하면 표6과 같다.

표6-시주(時柱)

연(年)	월(月)	일(日)	시(時)
酉	卯	未	申

이렇게 하여 명식 전체가 표7과 같이 완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이 남자의 가족관계를 분석한다. 위에서 명식과 가족관계의 상징적 관계에서 보았듯이, 자신은 유이며, 가족은 묘에 해당한다. 두 상징적 부호의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한다면, 이것이 곧 가족의 역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와 배우자, 나와 자식, 혹은 배우자와 나의 원가족 관계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시는 11시 30분에서 1시 30분의 기간으로 설정된다. 이하 다른 시간의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12) 원진량, 앞의 책, 125쪽.

표7-명식과 가족관계 대응

연(年)	월(月)	일(日)	시(時)
酉	卯	未	申
자신	가족	배우자	자식

2. 합(合)

나와 가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동을 나타내는 상징적 부호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지식이 12지지 사이의 조화와 갈등을 나타내는 관계 양상이다. 지지의 합은 주로 조화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육합(六合), 삼합(三合), 방합(方合) 등이 있다.¹³⁾

1) 육합(六合)

지지 육합은 천지와 춘하추동(사시)·동서남북(사방)을 상징한다. 12지지를 상하와 사방에 배정하면, 자축(子丑)은 아래(땅)에 있으므로 토(土)가 되고, 오미(午未)는 위(하늘)에 있으므로 일월(日月)이 된다. 인묘진사신유술해(寅卯辰巳申酉戌亥)는 각기 사방좌우에 분포하며 사계절이 천지간에 유행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사계절 특유의 오행으로 변화된다.¹⁴⁾

표8-육합(六合)

육합(六合)
자축합(子丑合)
인해합(寅亥合)
묘술합(卯戌合)
진유합(辰酉合)
사신합(巳申合)
오미합(午未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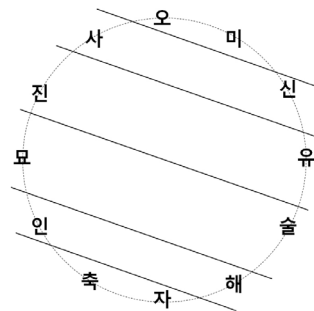


그림6-육합(六合)

13) 김만태, 「지지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지지합 연구」, 『철학논집』 31집(2012).

14) 위의 논문, 237쪽 참조.

2) 삼합(三合)

삼합은 명식을 세워서 기질이나 성격을 분석하고, 현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까르마에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삼합은 지지에서 오행(五行)의 기운을 읽을 때 나타난다. 오행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이며, 이는 사계절과 대응한다. 즉, 목(木)-봄, 화(火)-여름, 금(金)-가을, 수(水)-겨울, 그런데 여기서 토(土)는 독립된 사계절의 하나가 아니라, 계절과 계절 사이의 교체기에 배치되어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토는 사계절의 마디에 존재한다. 목(木)의 기운, 즉 봄의 기운은 묘(卯)에서 가장 왕성하다. 그런데 왕성한 목의 기운은 12지지의 해(亥)에서부터 처음 생겨나기 시작하여 점차 자라나온 것이다. 묘에서 목의 기운은 극성하게 되고, 차츰 목의 기운이 쇠하게 되면서, 미(未)에 이르면 완전히 사라진다. 이러한 목의 일생을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을 생지(生地), 왕지(旺地), 묘지(墓地)로 비유한다. 이는 각각 생(生)-해(亥), 왕(旺)-묘(卯), 묘(墓)-미(未) 등에 비유하며, 목의 삼합은 생왕묘(生旺墓)의 순서에 따라 해묘미(亥卯未)가 된다. 같은 원리가 다른 오행에도 적용된다.

화-여름은 그 기운이 인오술(寅午戌)의 생왕묘 단계를 거치고, 금-가을은 사유축(巳酉丑), 수-겨울은 신자진(申子辰)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를 삼합이라고 하며, 생왕묘 세 위(位)가 서로 합하여 국(局)을 이루어 하나의 오행 기(氣)로 작용하는 것이다.¹⁵⁾ 삼합 역시 기운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표9- 삼합(三合)

삼합(三合)
해묘미(亥卯未)
인오술(寅午戌)
사유축(巳酉丑)
신자진(申子辰)

15) 위의 논문, 23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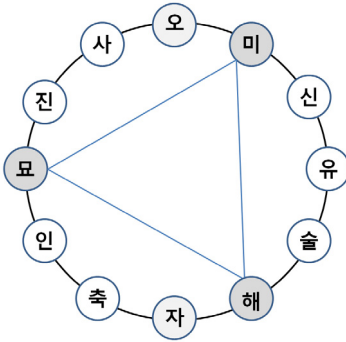


그림7-삼합(三合)-해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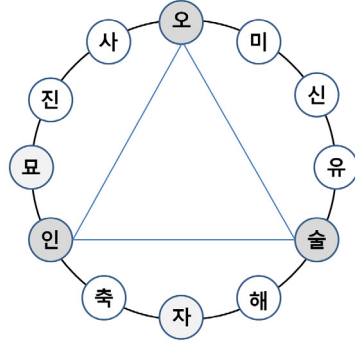


그림8-삼합-인오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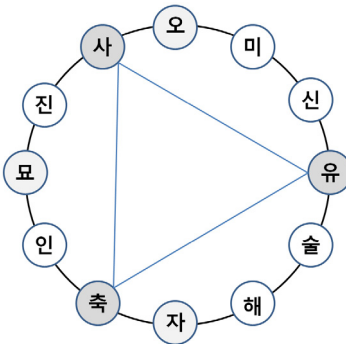


그림9-삼합-사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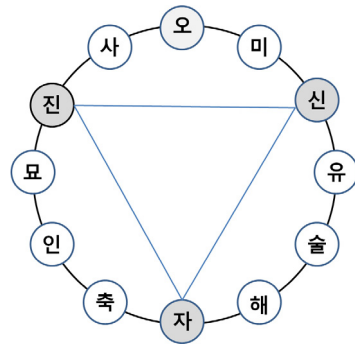


그림10-삼합-신자진

3) 방합(方舍)

방합은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12개 지지를 고려할 때, 같은 방위에 속하는 지지 셋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즉, 같은 방위에서 합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¹⁶⁾ 이는 방위의 기운이며 동시에 계절의 기운이기도 하다. 봄-동방(東方)-목(木), 여름-남방(南方)-화(火), 가을-서방(西方)-금(金), 겨울-북방(北方)-수(水) 등으로 묶일 수 있다. 역시 조화를 상징한다.

16) 원진량, 앞의 책, 56쪽.

표10-방합(方合)

방합(方合)	
인묘진(寅卯辰)	동(東)
사오미(巳午未)	남(南)
신유술(申酉戌)	서(西)
해자축(亥子丑)	북(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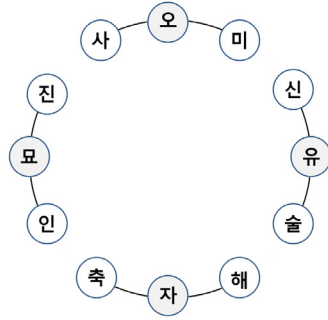


그림11-방합(方合)

3. 형충파해(形冲破害)

지지의 형충파해는 지지의 불건전한 관계를 가리키는데, 그 특징은 번뇌와 갈등을 상징한다.

1) 충(冲)

충(衝, 沖)은 기질이 상반되는 오행인 목과 금, 화와 수가 각기 동과 서, 남과 북의 방위에서 정면 대치하는 것으로서, 180° 서로 마주 보며 정면충돌하여 상극보다 더욱 큰 변화를 초래하는 작용을 말한다.¹⁷⁾

표11-충(冲)

충(冲)
자오충(子午冲)
축미충(丑未冲)
인신충(寅申冲)
묘유충(卯酉冲)
진술충(辰戌冲)
사해충(巳亥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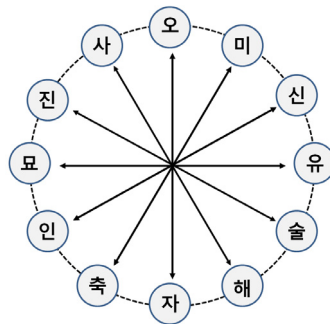


그림12-12지지의 충(冲)

17) 김만태, 「십이지(十二支)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衝)·형(刑)에 관한 근원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2013), 138쪽.

충(冲)은 분리나 이별의 현상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부부라면 이별하거나 살아서 떨어져 살 수도 있고, 이혼을 하거나 심하면 사별한다.¹⁸⁾

2) 형(刑)

형(刑)은 글자 형태에 ‘칼 도(刀)’ 자가 들어 있어 살을 베는 것과 같은 형상을 뜻한다. 폭언, 구설수, 상해, 삶의 불안정, 파란만장을 뜻한다. 충이 그릇이 깨지는 것이면, 형은 그릇에 금이 간 위태로운 상태를 의미한다.¹⁹⁾ 또한 술수학에서 형은 형사사건에 의한 형벌 또는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종 사건·사고 등을 의미한다.²⁰⁾ 이러한 형에는 대략 표12와 같이 세 종류가 있다.

표12-형(刑)

상형(相刑)	자형(自刑)	삼형(三刑)
자묘형(子卯刑) 인사형(寅巳刑) 사신형(巳申刑) 인신형(寅申刑) 축술형(丑戌刑) 축미형(丑未刑) 술미형(戌未刑)	진진형(辰辰刑) 오오형(午午刑) 유유형(酉酉刑) 해해형(亥亥刑)	인신사(寅申巳) 축술미(丑戌未)

3) 파(破)

파(破)는 ‘깨진다’, ‘망친다’를 뜻한다. 지지에 파가 성립되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깨지거나 망치는 일이 일어난다. 충이나 형보다 그 힘이 적다고는 하지만 파가 생기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긴다.²¹⁾

18) 원진량, 앞의 책, 85쪽.

19) 원진량, 앞의 책, 86쪽.

20) 김만태, 앞의 논문(2013), 149쪽.

21) 원진량, 앞의 책, 90쪽.

표13-파(破)

파(破)	
파 종류	첨부 사항
자유파(子酉破)	
축진파(丑辰破)	
인해파(寅亥破)	인해파는 인해합(寅亥合)도 된다.
오묘파(午卯破)	
사신파(巳申破)	사신파는 사신형(巳申刑)도 된다.
술미파(戌未破)	술미파는 술미형(戌未刑)도 된다.

4) 해(害)

해(害)는 ‘해를 끼치다’, ‘훼방을 하다’, ‘손해를 입히다’라는 뜻이다.²²⁾ 이 역시 불길한 상황을 암시하며, 갈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상징적 관계를 가리킨다.

표14-해(害)

해(害)
자미해(子未害)
진묘해(辰卯害)
축오해(丑午害)
신해해(申亥害)
유술해(酉戌害)

12지지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일반적으로 합은 조화와 상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호이다. 이와 반대로 형충과해는 각각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상징적 관계들을 정식화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가족의 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

22) 원진량, 앞의 책, 91쪽.

Ⅲ. 예술치료학의 가족관계 상징

1. 동적가족화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는 피검자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 간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투사그림 검사도구이다. 다양한 투사그림 검사도구 중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 및 역동을 탐색하기에 가장 적절한 검사도구이므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동적가족화 작업을 위해 표15와 같은 절차표를 정리하였다.²³⁾

표15- 동적가족화 절차표

동적가족화 절차	
준비물	A4 용지, 4B 연필, 지우개
방법	①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당신을 포함한 당신 가족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그려보세요. 막대사람이나 캐릭터가 아닌 사람을 그려주세요.” ② 시간제한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30분 정도 소요된다. ③ 피검자가 그리는 도중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됩니다”하고 단서를 주지 않는다. ④ 검사자는 피검자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표16의 지침을 준수해서 체크한다. ⑤ 검사자는 어떠한 개입이나 제안도 하지 않는다. ⑥ 그림에 대한 내용은 피검자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
진단	표16을 참조한다.

2. 역동성 그림분석 기준

역동성 그림분석 기준은 동적가족화를 그린 피검자의 심리파악을 위한 지침서이다.

그림을 표현하는 피검자는 다양한 대상자가 참여하며, 그림에 대한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반드시 연령, 성별, 학력, 상황,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진단한다.²⁴⁾

23) 최외선 외, 『미술치료 기법』(학지사, 2007), 31-32쪽.

24) 차마리, 『미술치료의 이해』(BlueLotus출판사, 2012), 42쪽.

표16-역동성 그림분석 기준표

역동성 그림분석 기준	
순서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이나 지배적 영향력 행사 순서로 반영
크기	크다-존경받거나 권위적 대상, 작다-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대상
위치	상단-주도적 인물, 하단-우울, 중앙-가족의 중심인물
거리	친밀성의 정도나 심리적 거리. 반대로 보상심리 반영
방향	정면-긍정적, 뒷면-부정적, 억압적 분노감, 옆면-양가적 태도
생략	생략된 구성원에 대한 양기감정, 갈등관계
타인 묘사	가족 내 친밀감이나 정서적 교류 대상이 없을 경우, 초기에 애착이나 신뢰감 형성의 대상
음영	신체라면 그 특정 부위에 몰입, 불안감, 분노감, 적개심
얼굴 표정	직접적인 정서반응
회전된 인물	다른 구성원들과 다른 방향일 경우이며, 거리감, 거부감, 갈등 상징
막대기 인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대 부족, 갈등, 저항, 정신지체, 뇌손상

역동성 그림분석은 인물의 묘사 순서, 위치, 크기, 거리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고, 표16과 같다.²⁵⁾

IV. 사례분석

지금까지 II장에서는 까르마에토스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가족의 역동을 해석할 수 있는 합(合)과 형충과해의 상징을 이해하였으며, III장에서는 가족 역동의 대표적인 동적가족화를 통해 역동성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림분석 기준과 그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실제적 사례를 통해 까르마에토스의 상징적 관계를 나타낸 명식과 동적가족화 그림에 묘사된 상징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 상관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은 까르마에토스의 명식과 동적가족화 그림을 분석해서 심리치료를 진행한 실제 사례들이다.

25) 신민섭 외,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학지사, 2004), 190-196쪽.

(1) 사례 1

내담자의 상담 내용

“현재 일도 만족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고 싶어요.”

태어난 시점: 음력 1983년 9월 25일 아침 7시에 태어난 미혼 여성

- ① 1983년은 계해년(癸亥年)이며, 돼지띠가 된다.
- ② 여자이므로 역행
- ③ 그림1을 참조하여 돼지띠(亥)를 손바닥에서 찾는다.
 - 연주=해(亥)
- ④ 해(亥)에서부터 태어난 달인 9월까지 역행으로, 아홉 번째 자리로 세어간다.
 - 월주=묘(卯)
- ⑤ 묘(卯)에서부터 태어난 날인 25일, 즉 25번째 자리까지 역행으로 세어간다.
 - 일주=묘(卯)
- ⑥ 표5를 참조하여 태어난 시를 찾는다.
 - 아침 7시=묘시(卯時)
- ⑦ 일주의 묘에서부터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순서로 네 번째 까지 역행하여 세어간다.
 - 묘에서 네 번째면 자(子)이다.
 - 시주=자(子)

위의 명식을 하나로 합하면 표17과 같다.

표17-사례 1 명식

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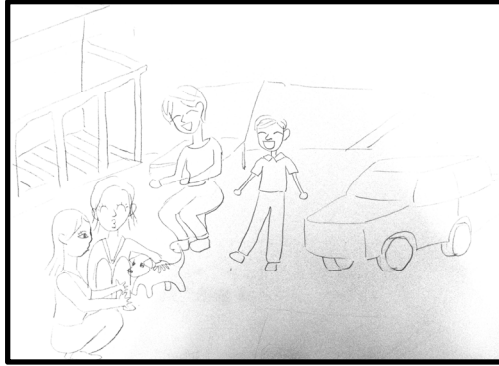
연(年)	월(月)	일(日)	시(時)
亥	卯	卯	子
자신	가족	배우자	자식

⇒ 사례 1 여성의 원가족과의 관계는 해묘미삼합(亥卯未三合)의 상징으로 배열되었다. 즉, 자신은 해(亥)이고 가족은 묘(卯)이기 때문에 해묘미 삼합의 유형에 속한다. 까르마에토스는 가족의 관계가 조화

롭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18-사례 1의 그림분석

사례 1의 그림분석



사례 1은 자신(좌측) → 父(우측) → 父 옆 母(가운데) → 여동생(자신과 母 사이) 순서로 묘사했다. 가족들 크기도 적당하며, 위치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중앙에 표현되었다. 가족 간의 거리는 특별히 떨어져 있다기보다 가깝게 모여 있는 간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의 그림에서는 특별히 생략이나 왜곡된 그림을 찾을 수 없으며, 타인 묘사, 음영, 회전된 인물, 막대기 인물도 등장하지 않았고, 얼굴 표정은 밝게 나타났다.

(2) 사례 2

내담자의 상담 내용

“처와 어머니의 갈등이 심합니다. 본가에서는 헤어지라고까지 합니다.”

태어난 시점: 음력 1972년 10월 4일 새벽 12시 40분에 태어난 결혼한 남성

- ① 1972년은 임자년(壬子年)이며, 쥐띠가 된다.
- ② 남자이므로 순행
- ③ 그림1을 참조하여 쥐띠(子)를 손바닥에서 찾는다.
 - 연주=자(子)
- ④ 자(子)에서부터 태어난 달인 10월까지 순행으로, 열 번째 자리로 세어간다.
 - 월주=유(酉)
- ⑤ 유(酉)에서부터 태어난 날인 4일, 즉 네 번째 자리까지 순행으로 세어간다.

- 일주=자(子)
- ⑥ 표5를 참조하여 태어난 시를 찾는다.
 - 새벽 12시 40분=자시(子時)
- ⑦ 일주의 자(子)에서부터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순서로 1번째까지 순행하여 세어간다.
 - 자(子)에서 1번째면 자(子)이다.
 - 시주=자(子)

표19-사례 2 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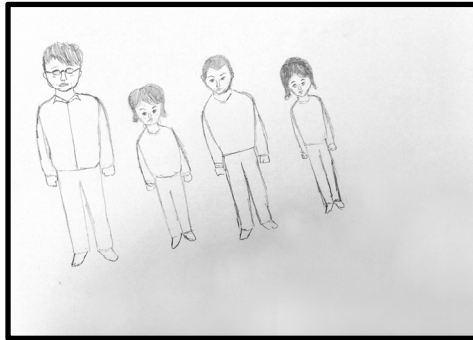
순서 ⇨

연(年)	월(月)	일(日)	시(時)
子	酉	子	子

⇒ 사례 2 남자는 원가족 간의 관계가 자유파(子酉破) 상징으로 되어 있다. 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깨진다', '망친다'를 뜻하는, 갈등을 강하게 암시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까르마에토스는 가족 간에 조화롭지 못한 불화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20-사례 2의 그림분석

사례 2의 그림분석



사례 2는 母(父 우측 女) → 父(좌측) → 배우자(우측 女) → 자신(배우자 좌측) 순서로 묘사했다. 크기가 작은 듯 보이며, 위치와 방향에서 좌측 상단으로 기울어지게 표현되었다. 일렬로 나열된 묘사이므로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확연히 예측할 수 있다. 자녀가 생략되었고, 가족 모두 머리에 음영이 선명하며, 얼굴 표정도 모두 무표정이거나 화가 난 듯이 보인다.

V. 맺음말: 사례분석의 결론

한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은 고유하게 타고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자매라 해도 기질이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천적인 요인만 한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상황, 즉 성장하면서 부모나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수정이 가능하다.²⁶⁾ 이는 인간의 기질과 성격이 근원적으로 선천성과 후천성의 양면성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카르마에토스와 같은 역학에서는 인간의 기질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요인이라는 것을 태어난 연월일시의 상징적 부호로 나타낸다. 이때 12지지는 해당하는 인간의 기질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이 상징으로 드러난 기질이나 성격은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예술치료학에서는 성장과정에서 기질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며 양육환경의 다양성이 인간에게 정서적 변화뿐 아니라 기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일 선천성을 강조한다면, 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집에서 태어난 경우라도 명식이 같으면 성격은 모두 일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자의 가정환경에 따라 기질이 변화되어 다른 성향을 갖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역으로 후천성을 강조한다면, 가정환경의 양육조건이 같은 경우에 성장하는 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경험적으로 각자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자녀들이 저마다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르다는 조건, 즉 선천적 기질이나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 개인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천적·후천적 요인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글은 가족 간의 역동이 역학의 상징적 부호와 그림의 상징적 표현에 유사하게 드러난다는 양자의 상징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 정리될 수 있다.

26) Calvin S. Hall 지음, 최현 옮김, 『융 심리학 입문』(범우사, 1988), 135쪽.

27) 성격의 선천성과 후천성의 문제는 Liebert, R. M. and Liebert, L. L. 지음, 조현춘 외 옮김, 『성격심리학』, “제14장 유전과 성격”(시그마프레스, 2002), 494-496쪽 참조.

첫째, 까르마에토스의 명식이 합(合)으로 구성된 연구 대상자가 동적가족화를 그렸을 때, 가족 간의 역동에 관한 상징성은 명식과 그림 모두에서 일치하였다.

사례 1의 명식은 해묘묘자(亥卯卯子)이다. 첫 번째 자리의 해(亥)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상징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자리의 묘(卯)는 원가족의 자리이고, 세 번째 자리의 묘는 배우자의 자리이다. 해와 묘는 삼합(三合)의 관계이므로 사례 1은 원가족과 배우자의 관계가 화목하며, 매우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네 번째 자리의 자(子)는 자녀의 자리이며, 해와 자는 방합(方合)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례 1은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례 1이 그린 동적가족화를 살펴보면 순서, 크기, 위치, 거리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크기의 지나친 확장, 축소, 한쪽으로 치우침 등의 특이한 표현은 위축, 우울, 충동성, 공격성 등의 불안정한 심리를 뜻한다. 그러나 사례 1 그림은 적절하게 묘사되었으므로 절제력, 조절력, 통제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역동성이 잘 나타난 거리, 생략, 타인 묘사, 음영, 얼굴 표정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안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첫 번째로 그린 것은 자존감이 향상됨을 상징하므로 사례 1이 가족과의 정서가 안정됨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사례 1의 가족 간의 역동은 합(合)의 상징성과 동적가족화의 상징성에서 모두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명식이 형충과해(形沖破害)로 구성된 연구 대상자가 동적가족화를 그렸을 때, 가족 간의 역동에 관한 상징성은 명식과 그림 모두에서 일치하였다.

사례 2의 명식은 자유자자(子酉子子)이다. 첫 번째 자리의 자(子)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위치이고, 두 번째 자리의 유(酉)는 원가족의 자리이다. 자와 유의 관계는 '깨진다', '망친다'의 뜻을 함의한 자유파(子酉破)를 상징하므로 좋지 않은 관계이다.

역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12지지의 동물 상징을 적용하면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子)는 쥐이고 유(酉)는 닭이다. 실제 생태계에서 쥐는 종종 닭의 항문을 훔치며, 닭은 이를 시원하게 느끼지만 쥐는 끝내 닭의 항문을 지나 내장을 뽑아 먹는 끔찍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자에 해당하는 사례 1의 내담자는 자이니 쥐이고, 원가족은 유이므로 닭에 해당한다. 이는 내담자가 마치 닭인 원가족(부모형제)의 내장을 파먹는 것과 같이 가족의 속을 썩이는 대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²⁸⁾

두 번째 자리의 유(酉)는 원가족이고 세 번째 자리의 자(子)는 배우자의 자리이다. 이 역시 자유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자라면 아내가 시집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여자라면 남편이 친정 식구들과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례 2가 그린 동적가족화를 살펴볼 때, 그림 순서나 거리를 통해 모친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주도적 성향의 인물임이 예상된다. 자신을 마지막으로 묘사한 것은 위축, 자존감 저하를 의미한다. 기울어지고 있는 위치와 방향에서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좌측 방향을 향하는 것으로 보아 미숙함이나 퇴행하고자 하는 욕구로 해석된다. 또한 자녀의 생략과 현가족이 아닌 원가족 중심의 그림은 동일하게 해석된다. 즉, 사례 2가 현재 당면한 미해결 과제를 극복할 의지력 부족과 자존감 저하로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머리의 음영은 스트레스 상태이거나 생각할 게 많을 경우 등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 2는 그림의 여러 곳에서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두 무표정한 가족의 얼굴은 긴장되고, 가족 간의 애정이 결여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례 2는 역동성 그림분석 기준을 통해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례 2의 가족 간의 역동은 형충과해의 상징성과 동적가족화의 상징성에서 모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실제 상담의 사례를 통하여 까르마에토스와 동적가족화의 이론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두 체계의 상징적 상관성을 밝혀보았다.

최근 심리학은 점차 뇌과학 분야와 같은 과학적 탐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를 임상의 실제 현장에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²⁹⁾ 그러나

28) 원진량, 앞의 책, 90쪽.

29) 불교와 심리연구원 주관, 「불교수행과 뇌, 그 치료적 의미」, 심포지엄(2011. 9);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와 마음연구회 공동개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경철학(Neurophilosophy)적 측면에서 바라본 비교 마음학 국제학술대회(2011. 12);

비록 과학적 탐구와는 거리가 있지만, 역학의 심리학적 지혜를 현대 심리학으로 조명한다면, 인간 이해의 오랜 역사적 가치가 현재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인간은 과학적 이해를 포함하여 인문사회과학의 인간학적 측면,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해서 접근해야 하는 종합적이고 복잡한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학의 한 분야를 과감하게 예술치료학의 영역에 접목시켜, 인간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심도를 더해가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까르마에토스와 동적가족화의 실증사례를 분석하여, 그 상징적 상관성을 입증한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공감이론」, 한국정치사상학회 3월 발표회(2012. 3); 불교와 심리연구원 주관, 「명상과 무의식」, 심포지엄(2012. 9); 차현희, 『뇌기능분석을 통한 만다라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뇌파검사와 신경심리검사를 중심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4-5쪽.

참 고 문 헌

- 김만태, 「지지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지지합 연구」, 『철학논집』 31집, 2012.
_____, 「십이지(十二支)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충(衝)·형(刑)에 관한 근원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 2013.
- 廖名春 외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8.
- Liebert, R. M. and Liebert, L. L. 지음, 조현춘 외 옮김, 『성격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2.
- 서울대 인문한국사업단,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제7회 HK위
크숍(국제), 『동아시아 술수학 지식의 교류와 전파(The study of Shushu(술수):
Its Exchange and Dissemination in East Asia) 학술대회발표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 신민섭 외,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학지사, 2004.
- 원진량, 『일장금 명리학』. 고려역학출판사, 2010.
- 이창일, 『불교사상과 음양오행론에 기반을 둔 성격유형론 연구: 까르마에토스
(Karma Ethos)의 이론과 적용』.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차마리, 『미술치료의 이해』. BlueLotus출판사, 2012.
- 차현희, 『뇌기능분석을 통한 만다라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성인여성을 대상
으로 한 뇌파검사와 신경심리검사를 중심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3.
- 최외선 외, 『미술치료 기법』. 학지사, 2007.
- Hall, Calvin S. 지음, 최현 옮김, 『융 심리학 입문』. 범우사, 1988.
- 唐一行 著, 『新刻達磨一掌金』 55册[『眞本術數叢書』(全72册)]. 台北: 新文豐出版
公司, 1995.
- 芝蘭, 『達磨一掌經』. 台北: 知青頻圖出版, 2006.

국 문 요 약

이 글은 역학(易學)의 까르마에토스와 예술치료의 동적가족화가 상징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타고난 기질을 반영한 생년월일 시로 구성된 까르마에토스는 가족 간의 역동을 합(合)이나 형충과해(刑沖破害) 등의 상징해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격유형론이다.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도나 상호작용을 즉시 해석할 수 있는 동적가족화는 역동성 그림분석 기준(순서, 크기, 위치, 거리, 방향, 생략, 타인 묘사, 음영, 얼굴 표정, 회전된 인물, 막대기 인물)에 의해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사그림 검사도구이다.

까르마에토스와 동적가족화는 가족 간의 역동분석이 가능한 공통된 상징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남녀 각각을 대상으로 명식과 그림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까르마에토스에서 가족 간의 합으로 구성된 유형의 사람은 동적가족화에서도 가족을 화목한 모습과 안정적인 구도로 묘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까르마에토스에서 가족 간의 형충과해로 조합된 유형의 사람은 동적가족화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가 불안정적이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표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역학의 까르마에토스와 예술치료학의 동적가족화 상징성에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 글의 의의는 인간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역학과 예술치료학과의 상관성을 밝힌 것이다. 또한 실제 상담에서 까르마에토스와 동적가족화를 적용·분석하여 상징의 상관성을 입증한 것이다.

투고일 2015. 6. 23

심사일 2015. 7. 16.

게재 확정일 2015. 9. 3.

주제어(keyword) 역학(易學, Yijing), 까르마에토스(Karma Ethos), 예술치료(Art Therapy),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 상징(symbol), 명식(expressions of destiny)

Abstracts

An Inquiry on the Correlativity of the Yijing and the Art Therap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ymbolism of Karma Ethos and KFD

Cha, Hyun-hee

This research is investigating whether there is the symbolical relationship between Karma Ethos in Yijing and KFD(Kinetic Family Drawing) in Art Therapy.

The Karma Ethos is the personal type theory to offer the various informations on the family dynamics with the symbolical interpretations as a harmonious combination or inharmonious combinations i.e. *hêng, tshong, pua, hai* (punishment, clash, destroy, harm). And KFD is able to immediately interpret the intimacy and interrelations between family members and is the major check picture projection which can grasp the client's psychological states by the criteria of dynamis drawing analysis(order, size, position, distance, direction, omit, description of others, shade, facial expressions, rotated character, stick character).

With the hypothesis that have common symbols dynamically to interpret the dynamics between family members, the expressions of destiny and the drawings of man and woman are compared and analysed.

As a results, we have confirmations that one tends to have harmonious expression of destiny describes one's family relation as peaceful with stable composition in KFD.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one tends to have inharmonious expression of destiny describes one's family relation as nervous with unstable composition in KFD.

This research examines the symbolical correlativity between Karma Ethos in Yijing and KFD in Art Therapy through the actual case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illuminate the correlativity between Yijing and Art Therapy,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human being from various angles. Also, this research examines the symbolical correlativity to apply the Karma Ethos and KFD and analyse that results in actual counseling.